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0. No. 6, pp. 96-108, 2020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6.096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사례분석 -10개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을 중심으로-

김재현[1], 이성호[2], 남정민[3*]
[1]단국대학교 미래ICT융합학과 박사과정 [2]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3]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교수

A Case Study on the Advancement of Uni. Start-up Education

Jae-Hyun Kim[1], Sung-Ho Lee[2], Jung-Min Nam[3*]
[1]Student, Dept. of Future ICT Convergence, Dankook University
[2]Student, Dept. of Global Venture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3]Professor, Dept. of Global Venture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등 대학 창업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창업교육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10개 대학의 문헌연구, 실무자 사전진단설문지, 방문컨설팅의 3단계로 진행하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다. 4년제 대학은 기존의 양적인 성과에서 질적 내실화 단계로 양적 인프라 등을 이용, 4년제 대학의 특화된 창업 밸리 조성과 실전 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화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대학은 지원인프라, 사업화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학과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차별화된 평가지표 도입이 시급하였다.

주제어 : 대학 창업교육, 창업교육진단,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Abstrac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college start-up education consulting operated by the Center for Start-up Educ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Uni. start-up education, such as regular subjects, comparative studies, commercialization of start-up businesses, and supporting infrastructure, and understood the meaning of start-up educ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of literature research at 10 universities, pre-diagnosis questionnaire for practitioners, and visiting consulting, and presented design direction by separating universities (four-year colleges) and colleges of specialties. Universities (four-year colleges) ne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create a specialized start-up valley for universities and start-up businesses using infrastructure with existing quantitative growth, and colleges need to establish professional and infrastructure for start-up education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epartments. In addition, it was urgent to introduce differentiated evaluation indicators for universities (four-year colleges) and colleges.

Key Words : Uni. Start-up education, Start-up education diagnosis, Regular subjects, Comparative studies, Start-up commercialization, Support infrastructure

*Corresponding Author : Jung-Min Nam(namjm@dankook.ac.kr)
Received March 27, 2020
Revised May 19,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28, 2020

1. 서론

2020년 과학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 및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대한민국 청년실업의 문제점을 점점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 등 대내·외적 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며 투자·수출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황 및 장기침체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창업이다. 창업은 혁신을 통해 고용시장의 새로운 방향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1].

정부는 청년창업을 통한 저성장시대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조 4,51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336억 원(29.8%) 증가하였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사업화, R&D,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2].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대학들도 다양한 창업 강좌 개설,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도입 등 대학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전체의 창업 관련 개설강좌 13%, 수강인원 6.3%가 증가하였으며 창업 강좌에서 전공 17.3%, 교양 8.6%, 창업 강좌 유형도 이론형 12.7%, 실습형 14.4% 증가하였다[3].

하지만 이러한 창업교육의 외형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2017년 GEM(총 64개국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학’ 및 ‘평생교육’ 차원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중위권(15위)에 불과하고 학생이 졸업 후 진로로써 창업과 취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학생은 총 1,075명 중 53명인 약 5%밖에 되지 않는다[4-6]. 그런데도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로는 교육을 통해 개인에게 창업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술의 발견과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창업촉진 및 혁신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창업교육은 창업 관련 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국가, 지역을 통틀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7-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방향과 실질적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학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창업교육 거점센터가 4년제 대학 6곳, 전문대학 4곳, 10개 대학의 문헌연구, 실무자 사전진단 설문지, 방문 컨설팅의 3단계로 진행된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등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 방향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Table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여 창업 의지 및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able 1. Uni.-specific Consulting Diagnostic Method

Stage. 1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Organization / Manpower / Annual Budget / External Support Attraction / Technology Holding Company, the survey guide is derived
Stage. 2 Pre-diagnosis questionnaire	By university and College Regular Subject(non-subject) / Supporting Infrastructure / Start-up Commercialization status analysis
Stage. 3 Visit Consulting	University Common and Specific Queries, College Common and Specific Queries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의 목적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정신은 개인 수준에서의 창업가 또는 기업가뿐만 아니라 최고 경영자, 중간관리자, 조직 구성원들도 기업가정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규모 측면에서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10].

창업교육 및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의 사업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창업교육은 창업의 사업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가정신을 배양하여 생애기간 중 도전적인 삶의 방식을 구조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11].

Drucker(1985), Bygrave and Zacharakis(2004)은 창업교육은 유연한 사고, 창의력, 도전정신, 상상력, 기회포착 등의 역량을 향상하는 목적이며, Testa &

Frascheri(2015)에 따르면 창업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성 등과 같은 특성이나 역량을 개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로 기업가적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2-15]. 즉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적 기술 외에도 창업의 사업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정신의 배양을 통하여 생애 동안 도전적인 삶의 방식과 협업능력, 창조성,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학은 학생 본인의 진로로 창업 사업화를 희망하는 학생과 희망하지 않는 학생 상관없이 대학 창업교육 지원에 목적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나타난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직무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2009년까지 창의적 커뮤니케이션과 비구조화된 문제해결이 필요한 직무는 꾸준히 늘어났고, 육체 직무 및 사무 직무는 감소하였다[16].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불확실한 노동 시장 환경은 창업을 불가피한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2.2 국내외 대학창업교육 현황

2.2.1 국내 대학창업교육 현황 및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1차~2차)

1980~2000년대까지 국내 창업교육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구직난 해소를 목적으로 경영학 위주의 중소기업 경영론이 교과목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평가, 기술요인, 사업계획서 등 실무교육이 포함된 독립적인 정규교과 과정으로 발전 운영되었다[17]. 또한, 2010년 이후 창업선도대학,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의 운영으로 정규교과와 비교과 증대와 함께 예비창업자를 위한 사업화, 지원 인프라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었다[18].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도전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업활동 및 창업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창업교육 확대, 창업전담 교원 증가, 학생의 창업 도전환경 조성, 대학의 창업교육 유도가 목표인 '1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3~'17)'을 시행하였다[19]. 또한, 현 정부는 저성장 기조로 인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Fig. 1은 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으로 비전과 3개의 전략목표, 10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창업교육환경 중 가장 큰 특징은 생태계를 제안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지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 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 대학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조직으로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지원단 34개, LINC+의 창업교육센터 99개, 창업 공간 제공을 위한 195개의 창업보육센터가 대표적이다.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지원단은 창업 강좌 지원 기능도 있지만 주된 역할은 대학 내·외부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창업기업 790개를 지원하였다. 창업교육센터는 창업 강좌와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한 창업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년 우리나라 전체 창업 강좌 313개와 창업동아리 5,468개를 운영하고 있다[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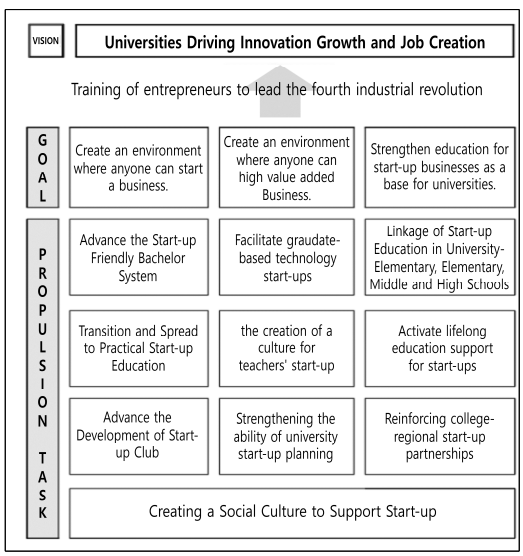

Fig. 1. The Second Five-Year Plan for Start-up Education at Uni.

2.2.2 해외(미국) 대학창업교육 현황

창업교육의 가장 선진국인 미국은 1947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창업교육을 시작하여 1971년 창업학 전공이 USC(Uni.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MBA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이때부터 창업학이 정착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2,200개 코스가 1,600개가 넘는 학교에서 개설되었으며 새로운 학문으로서

영역이 구축되었다[21].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교육을 이끌고 있다. 즉, 연방정부, 주 정부와 지역, 학교 그리고 민간의 창업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이 잘 구조화되어 있다[22]. 카우프만 조사(2007)에 따르면, 5,000개의 창업코스가 2년제와 4년제에서 제공되며, 500개 이상의 대학이 창업교육을 전공, 부전공, 인증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 창업 프로그램과 코스가 경영대학이나 공대에서 제공되며, 공대-경영대 파트너십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센터(Entrepreneurship Center)를 운영하는 학부 단위의 기업가정신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 중 활성화된 미국 서부 5개 대학을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San Diego State Uni.는 학문적 재능, 지역 산업, 그리고 개인 기부자들이 협력하여 가장 최근의 학문적 지식과 경험적 학습의 균형을 맞출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24-29].

Table 2. Summary of Start-up Education of 5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Uni.	Subjects and Features	Non-subject Program
Uni. of Southern California	· 80+ Courses · Connected Education in 1~3 stage · Open Bachelor's and Master's Program	· Student, faculty, and graduate contests ·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scholarships
California State Uni., Sanbernardino	· Essential subjects for the initial stage of a project · Collaboration in other majors · Networking with entrepreneurs and alumni · Open Bachelor's and Master's Program	· Student, faculty, and graduate contests ·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scholarship
San Diego State Uni.	· Essential subject for entrepreneurship/ethics · Networking with entrepreneurs and alumni · Open Bachelor's and Master's Program	· Multi-School Student Integration Competition · Funding and legal support
Florida State Uni.	· Essential subjects such as entrepreneurship, accounting, finance, etc. · Open Bachelor's and Master's Program	· Special lecture for graduates · Working with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Oklahoma State Uni.	· Essential subject of entrepreneurship thinking and action (businessization is optional) · Open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te programs	· A weekly contest · Operation of links with clubs, scholarships, and communities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및 대상

대학 창업교육의 사례분석은 대부분 해외 사례가 중심이 되어 왔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학 창업교육을 연구한 국내사례는 “PBL 교수법에 기반을 둔 대학 창업교육 학습 사례연구[30]”, “해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과 특징에 관한 연구: 미국 5개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31]”의 연구처럼 대부분 한 가지 교육과정과 교수법 및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2019년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대학 창업교육 거점센터의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 사업으로 Fig. 2와 같이 10개 대학(4년제 대학 6곳, 전문대학 4곳)의 교과목,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등 전반적인 대학 창업교육 고찰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및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 방향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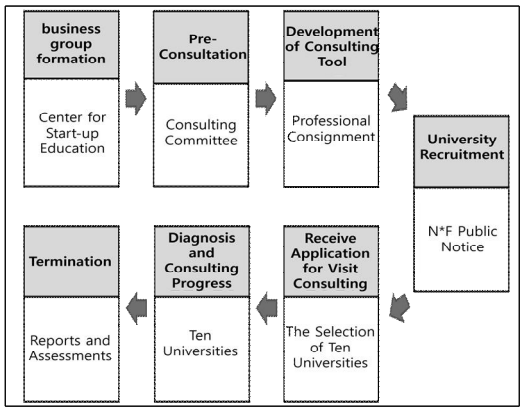

Fig. 2. Performance of Start-up Base Center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창업교육 거점센터 사업은 우리나라 창업교육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량 단계별 창업교육 표준모델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전국의 거점센터 2곳을 선정하여 ① 창업교육 운영 고도화, ② 창업 인재 발굴·육성, ③ 대학 중심 창업문화 확산의 3가지 사업으로 현재 서울,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을 담당하는 수도권의 D 대학과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를 담당하는 D 대학 2곳이 사업을 수행한다.

3.2 창업교육 거점센터의 창업교육 컨설팅

3.2.1 창업교육 컨설팅 현황

현재 수도권 D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거점센터의 창업교육 컨설팅은 서울, 수도권, 충청권의 창업교육 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2달간 방문컨설팅 진행하였다. 모집은 2019년 9월~10월 한국연구재단과 수도권 D 대학 창업교육 거점센터에서 공문을 전국 대학에 발송하여 희망 대학을 모집하였으며 2019년 11월~12월까지 진행되었다. 자문위원으로 총 12명의 외부 전문가가 투입되었으며 대학 참석자는 각 대학의 총장과 주요 보직자를 포함한 62명으로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Statistical Data Under Study

Sort.	Uni. name	Number of student	Participant	Consultant
University	'K' Uni.	15,903 people	Vice President and 11 others	Kim**('C' Uni.) and 4 others.
	'S' Uni.	9,472 people	Vice President and 8 others.	Kim**('C' Uni.) and 3 others.
	'I' Uni.	17,370 people	the president and 7 others	Kim**('K' Uni.) and 3 others.
	'J' Uni.	7,749 people	Vice President and 5 others.	KIm**('D' Uni.) and 2 others.
	'H' Uni.	3,865 people	dean of students and 2 others.	KIm**('D' Uni.) and 2 others.
	'L' Uni.	359 people	Chief of Education and 3 others	Kim**('H' Uni.) and 3 others.
College	'M' College	7,178 people	Chief Planning Officer and 4 others	KIm**('D' Uni.) and 4 others.
	'S' College	5,629 people	the president and 4 others	KIm**('D' Uni.) and 4 others.
	'H' College	6,136 people	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Group President and 5 others	Kim**('K' Uni.) and 4 others.
	'S' College	1,404 people	the president and 4 others	Kim**('N' Uni.) and 2 others.

3.2.2 창업교육 컨설팅 TOOL

본 연구는 대학 창업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근거한 대학 창업 운영 매뉴얼 3.0을 연구를 기반으로 지난 2~3년간 한국연구재단과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자가진단모델을 통하여 각 모듈별 5단계 세부 지표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활용했던 창업교육 컨설팅 진단 모델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 및 관련 내용이 반영된 정규교과, 창업 사업화 부분의 가중치를 수정하여 고도화된 Table 4의 TOOL을 사용하였다. 10개 대학(4년제 대학 6개, 전문대학 4개)의 사례분석으로 대학 창업교육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분류 하였으며, 1차 문헌연구, 2차 실무자 사전진단 설문지, 3차 방문컨설팅의 3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총 4가지 모듈로 TOOL을 구성하였다.

Table 4. Start-up Education Consulting TOOL

Module			Summary					
			2	4	6	8	10	allotment
Regular Subject	regular curriculum		a course for start-ups with credits					
	Practical Start-up Training							
	Start-up transfer student ratio							
Non-Subject Program	Club	Number of Club	Start-up Club, etc. Preparing for Start-up Activities					
		Student ratio						
		support fund						
	Contest							
	Camp and Special Lecture							
start-up commercialization	Scouting		Item Commercialization Selected Companies					
	Accelerating		Start-up support projects, investment/specialized child care programs, etc.					
	Scale-up		Growth and Global Advancement Programs (Marketing, R&D, etc.)					
	Start-up Fund Establishment and Investment		Attracting investment from selected companies for item commercialization, etc.					
Support infrastructure	Organization		Dedicated organization, consultation window, and integrated integration					
	Manpower		Dedicated personnel (persons), persons with more than 3 years experience (persons)					
	Space		The area of the start-up club (m2), the area of support space for start-up businesses (m2)					
	Equipment		Equipment retention, management personnel, and operation of equipment education programs					
	System	Bachelor	Start-up leave system (adoption status), start-up specialties, start-up scholarship, start-up focus teachers, etc					
		personnel						

정규교과는 대학생의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창업 강좌를 의미하며, 창업 강좌는 대학 내에서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으로 개설된다. 비정규 교과는 시제품제작, 창업팀 빌딩, 창업역량배양 등을 목적으로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창업활동이다. 창업 사업화는 우수 창업자원을 발굴하여 대학 자체 또는 외부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 사업화의 성공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원 인프라는 효율적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인력의 구축, 공간/장비 구축, 제도 구축, 예산지원 등과 같은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컨설팅 TOOL은 교육부 창업교육 매뉴얼 3.0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델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이는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에서 제작된 '수요자 맞춤형 대학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개발된 대학창업 지원모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32].

3.3 4년제 대학 창업교육 진단 및 방문 컨설팅

3.3.1 4년제 대학 창업교육 사전진단

4년제 대학 6곳을 선정하여 컨설팅 TOOL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인력, 연간예산, 외부지원유치, 기술지주회사 등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실무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컨설팅 TOOL에 대입하여 점수화하였다. 창업교육센터가 설립된 대학을 중점으로 top-down 방식을 통해 우수대학을 점수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32]. 정규교과 230~270점, 비교과 200~250점, 창업 사업화 130~180점, 지원 인프라 250~280점으로 합계 900~1000점으로, 컨설팅 신청 대학과 비교하면 정규교과, 비교과, 지원 인프라 경우 보통 또는 우수한 수준이며 창업 사업화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분포로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 The Six Universities of Modules

Module			'K' Uni.	'S' Uni.	'I' Uni.	'J' Uni.	'H' Uni.	'L' Uni.
Regular Subject	Number of courses		100	100	100	100	100	40
	completed student		100	100	100	100	100	100
	percentage of practical subjects		50	10	10	10	20	10
	Open required liberal arts courses		8	20	8	20	8	8
	Total		**258**	**230**	**218**	**230**	**228**	**158**
Non-Subject Program	number of clubs		50	50	10	50	30	10
	club participation rate		30	50	50	40	30	50
	Contest		50	40	50	50	50	10
	Camp and Special Lecture		50	20	20	50	50	40
	Autonomous Specialization Program		20	20	20	20	20	20
	total		**200**	**160**	**150**	**210**	**180**	**130**
start-up commercialization	Accelerating		30	30	60	60	60	30
	Scale-up		60	30	70	30	90	30
	total		**90**	**60**	**130**	**90**	**150**	**60**
Support infrastructure	Organization		50	20	50	20	20	20
	Manpower		50	50	50	20	20	20
	Space		40	40	24	32	8	20
	Equipment		40	40	40	16	32	0
	System	Bachelor	40	40	40	40	30	10
		personnel	30	50	20	40	10	10
	total		**250**	**240**	**224**	**168**	**120**	**80**

3.3.2 4년제 대학 실무자 사전 질의

공통적인 대학 창업교육 담당자들의 주요 컨설팅 희망 사항은 창업교과(전공, 교양), 비교과(경진대회, 동아리 등)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창업 사업화 고도화, 창업친화적 학제 구축방안 등 대학 내 창업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개별 질의 사항은 창업교육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방안, 창업 융·복합 전공개설 방안, 창업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정부 방향, 학생창업 우수사례 발굴 방안, 정부 지원 유치 조건과 전략 등으로 질의 사항은 대부분 대학평가에 연관된 질문 등이었다.

1. 공통질의 사항
   (1) 정규교과(전공 창업) 강좌 운영 방향
   (2) 창업사업화 실현화 방안
2. 학교별 개별 질의 사항
   (1) K 대학 - 창업교육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방안
   (2) S 대학 - 창업 융·복합 전공개설 방안
   (3) I 대학 - 창업교과과정 운영에 따른 정부 방향
   (4) J 대학 - 학생 창업 우수사례 발굴 방안
   (5) H 대학 - 정부 지원사업 유치 조건과 전략
   (6) L 대학 - 특성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3.3.3 4년제 대학 방문 컨설팅

4년제 대학의 공통질문에 대한 컨설팅은 정규교과 교양강좌 및 실습과목 대한 확대와 창업 사업화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정규교과의 이론형 강좌들을 실습형 강좌로 전환 시키는 방안과 창업 사업화 확대방안들이 컨설팅 되었다. 학교별 질의 사항에 관한 내용은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방안과 창업 융·복합 전공개설방안, 창업교육의 정부의 방향, 사업화, 학생창업 우수사례 발굴, 정부 지원사업 유치 조건과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1. 공통질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1) 필수교양개설 - 첫 번째, 이론형 강좌를 실습형 강좌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교수법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학생들이 창업트랙을 선택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그룹화가 필요하다. 우수대학의 경우 기업가정신 마인드셋, 아이디어 도축, 개발, 런칭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1-1) 체계적 커리큘럼 구성 - 린 스타트업, 피칭대회 → 아이디어 경진대회(동아리 수준, U300)의 단계를

넘어 사업자 단계 → 엔젤투자 → 데모데이와 같이 진행 순서가 있는 것과 같이 교과목에도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이 배운 전공을 통하여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CEO 특강 등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2) 멘토링 - 창업동아리를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대학교의 경우 3팀당 1명의 전문가를 두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도 관리된 팀의 경우 청년사관학교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2-1) 동문회 펀딩(대학 내 펀드 조성) - 대학 내 자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동문 펀드를 조성하게 된다면 교비의 부담 없이 사업화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대의 경우 동문 가족 회사를 통해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 칭화대의 경우 동문회 행사에 있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이를 기반으로 엔젤투자 등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2-2) 지역 연계(외부활동 연계) - 지자체 또는 TP 등과 연계하면 좋을 것이다. 단*대학교의 경우 판교, 광교와 융합하여 외부활동을 진행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지역 창업자들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먼저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외부활동연계는 사업화 확장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2-3) 교내 지원 조직 활성화 - 대학 내부의 지원처가 다양하다 보니 중앙 컨트롤러가 약한 경우가 많다. 창업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통합적이며 전문적인 조직이 중요할 것이다. 그 조직은 학생들이 필요한 네트워크, 정보, 지원금 등을 전담하여 지원함으로서 내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학교별 질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1) K 대학 - 융합 전공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공 6과목, 교양 4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취·창업영역에서 교양과목을 학습하고, 교양/전공/학사제도로 연결될 수 있다. 비교과 과정의 경우 창업교육센터, 캠프, 인턴십 등 실습형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전임교수 참여, 창업교육 중점교수 참여 등으로 지원되면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창업교육 우수대학의 경우(휴스턴, 텍사스 등) 융합 전공을 통해 수료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졸업 후 취업에도 혜택을 받고 있다.

*(2) S 대학 - 중*대학교의 경우 창업학 전공 개설을 희망하였으나, 추후 진로나 교내 문제로 인하여 연계 전공으로 개설하였다. 기존 A 전공과목, B 전공과목을 취합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후 융합 전공을 창업학 전공으로 개설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창업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융합 전공개설이 불가피하였다. 전공 18학점이 필요하여 창업 이론 및 실습 위주로 개설하였다. 전공 6과목의 장점은 복수전공으로써 학과를 선택하여 선택적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대의 경우 매 학기 200명 정도 지원하고 있다. 융합 전공개설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팅이 필요할 것이다. 교양과 중첩이 되지 않으면서 실전 창업과목들 위주로 개설이 필요할 것이다. 단*대, 한*대, 중*대 등 유사사례가 많으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무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3) I 대학 - 정부 기관은 부처들의 사업 방향을 부처의 특성에 맞춰 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는 창업가보다 잠재적 창업가 즉, 인재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기부는 잠재적 창업가가 아닌 예비 창업가를 육성하기를 원한다. 예비창업자는 아이디어가 있기에 도움을 통해 창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 측면에서 잠재적 창업가는 문제해결 능력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만이 아닌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양적으로 실적 수치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 학생창업이라는 것은 미비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치적으로 양성하다 보면 큰 위험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잠재적 창업가에서 창업에 몰두할 수 있는 학생들을 미리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J 대학 - 창업문화 확산 측면에서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거부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 창의적인 과목이 필요하다. 린 스타트업 대회, 아이디어경진대회(동아리, U300 수준)의 단계를 넘어 사업자 단계-엔젤투자-데모데이 순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많은 학생과 다양한 정부 지원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학교에서는 발굴하기 쉽지 않다. 전 학과가 촘촘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H 대학 - 대부분 대학의 링크 사업 또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조직이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꾸준히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보면 조직의 지속성이 좋다고 생각한다. 중*대의 경우 링크사업에 떨어졌다가 다시 도전하였으나, 유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인력들이 성과를 낼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학교들이 오래간다. 조직의 지속성이 없으면 정량지표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준일 수 있다.*

(6) L 대학 - 전공과 관계없이 기업가정신 과목 개설이 필요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경우, 전공마다 창업방식이 다르므로 업종별 창업의 오류 등 최소 한 과목씩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창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해 창업 실무 과목을 개설하면 좋을 것이다. 체계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지원해야 한다. 전담조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실무과정 수업과 연계하여 학기 말에 발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고객 검증, 제품 검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할 것이다.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3.4 4년제 대학 창업교육 방향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위원들은 기존 4년제 대학의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의 창업교육 현황은 양적 성과에서 질적 내실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4년제 대학 창업교육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년별 창업교육 모듈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과 사업화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해야 한다. 정규교과목의 필수교양강좌 개설이 필수적이며 실습형 교과목을 늘리고 비교과의 내용을 구조화해야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체계적인 사업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외부 혁신 기업(TIPS)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대학의 특화된 창업 밸리 조성과 실전 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전문대학 창업교육 진단 및 컨설팅

3.4.1 전문대학 창업교육 사전진단

컨설팅에 선정된 4개 전문대학교를 컨설팅 TOOL에 의해 사전 제출한 문헌연구를 Table 6에 점수화하였다. 컨설팅 TOOL의 기준이 된 우수대학(4년제 대학)과 컨설팅에 참여한 4년제 대학 6곳과 비교하면 사업화 및 지원 인프라 부문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취업 및 국가고시를 이용한 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전문대의 특성이며 창업교육은 양적, 질적 성장이 함께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의미이다.

Table 6. The Four Colleges of Modules

Module			'M' Uni.	'S' Uni.	'H' Uni.	'S' Uni.
Regular Subject	Number of courses		100	100	100	100
	completed student		100	100	100	100
	percentage of practical subjects		50	50	50	10
	Open required liberal arts courses		20	20	8	8
	Total		**270**	**270**	**258**	**218**
Non-Subject Program	number of clubs		30	50	50	10
	club participation rate		20	50	50	50
	Contest		20	50	50	40
	Camp and Special Lecture		20	20	20	20
	Autonomous Specialization Program		20	20	20	20
	total		**110**	**190**	**190**	**140**
start-up commercialization	Accelerating		30	30	30	60
	Scale-up		30	30	30	30
	total		**60**	**60**	**60**	**90**
Support infrastructure	Organization		20	50	50	0
	Manpower		50	20	40	0
	Space		0	0	16	0
	Equipment		0	32	0	0
	System	Bachelor	10	10	20	0
		personnel	20	0	30	10
	total		**100**	**112**	**156**	**10**

3.4.2 전문대학 실무자 사전 질의 사항

전문대학의 공통적인 창업교육 실무자 사전 질의 사항을 살펴보면 전문대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방향 및 창업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별 질의 사항은 특성화 창업교육 프로그램, 정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제도, 메이커스페이스 활용방안, 창업동아리 선정방법 및 지원방안,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이었다. 이는 창업교육 및 인프라 확산이 전문대의 특성

상 아직 초기 단계를 의미하며 사업화 및 대학평가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1. 공통질의 사항
(1) 전문대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방향
(2) 창업 인프라 구축방안(창업전담 교원 등)
2. 학교별 개별 질의 사항
(1) M 대학 - 정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제도
(2) S 대학 -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방안
(3) H 대학 - 창업동아리 선정방법 및 지원방안
(4) S 대학 -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방안

3.4.3 전문대학 방문 컨설팅

전문대학의 공통질문에 대한 컨설팅은 전문대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방향과 창업 인프라 구축방안(창업전담 교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4년제 대학과 구별되는 전문대학만의 특성을 구축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를 방향성에 대해 이루어졌다. 학교별 질의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전문대학 특성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제도,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방안, 창업동아리 선정방법 및 지원방안,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방안 등으로 논의되었다.

1. 공통질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1) 온라인 창업교육-전문대학의 경우 창업 강좌를 정규교과에 개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오프라인 강좌로 K-Startup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100개 대학이 진행 중이며, pass/fail로서 성적을 제공하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1-1) 교수진들의 창업인식-기본적으로 창업의 중요성, 대학창업의 중요성, 왜 전문대학에서 창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내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위해 인식 개선을 우선시하여야 한다. 이후 교수들이 하는 창업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교수진들에 제공되는 혜택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1-2)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창업실습) - 현재 창업실습 과목을 만들기를 장려하고 있다. 정규교과목은 아주 소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습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과목이 각 전공에 맞춰져서 팀 티칭 개념으로 개설하여 중간 비교과 특강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정규교과에 비정규 교과를 편성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규교과 내에서 1회 경진대회 또는 1회 특강을 참여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심도 있는 학습과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될 것이다.

(2) 외부 자원 활용-전담 조직인력이 부족한 전문대학의 경우 내부 인력만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KICT멘토링 센터, 온라인 마루(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외부로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클 것이다.

(2-1) 내부 컨설턴트-창업동아리 팀이 실전 창업도전에 있어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그 중 청년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창업선도대학 5천만 원의 지원금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만들고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2-2)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일반적으로 전문대학생들은 스스로 본인의 한계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계*예술대학교의 경우 인근에 있는 아*대학교와 연계하여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를 통해 학생들끼리 사업화를 진행하고 경진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학교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외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학교별 질의 사항에 대한 컨설팅

(1) M 대학 -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방향성이 다르다. 4년제 대학은 산업화의 목적이 있으며, 전문대는 진로교육에 가깝다. 창업 관련 국고가 한해 28조가 투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헬스 케어 경진대회, 교육부에 U300 등이 있다. 도전 K-Startup이 국내 최대 경진대회이다. 따라서 부처마다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대 특성에 맞는 정부 지원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질이 다르다 보니 쉽지 않다. 직업창출과 창업교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기술 창업 그리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가에만 매몰되어 정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대만의 새로운 창업교육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앞으로 창업을 할 시점이 있다는 것을 대비하여 그 차원에서 창업교육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운영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S 대학 - 학교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하고 싶은가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중장기적 차원에서 교과목 부분에 집중하는 교육 중점 형이다. 두 번째, 학내 비교과 활동을 통해 창업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집중하는 창업 문화 확산형이다. 세 번째, 먼저 선배들을 통해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외부 출품도 하여 실질적 창업을 발굴하는 형태인 실전 창업형이 있다. 전문대 특성상 실무성이 높아 교과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과나 문화확산으로 가다 실질 창업형으로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세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높다고 생각한다.

(3) H 대학 - 학생들에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일선에 있는 창업동아리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비교과에 참여하지 않을 시 활용비용을 고려한다던가 인센티브를 제공 또는 창업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매력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1)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는. 창업실습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장려하기 위해 있다. 정규교과목은 아주 소수로 되어 있어 실습형태로 진행되기 쉽다.

*(3-2) 교수진들과 코웍을 하다 보니 사업화 진행속도가 빠르고 현실 가능성이 커졌다. 계*예대의 경우 디자인 계열의 대학이다. 인근에 있는 아*대(4년제 대학)와 연계하여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를 통해 학생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그들만의 사업화를 진행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한마디로 전문대의 학생들은 자신감이 대체로 낮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본인의 범주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된다. 따라서 학교 프로그램이 아닌 외부 프로그램을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학생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 스타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담조직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전담조직은 지자체, 정부 사업, 소셜네트워크 벤처(공간 지원, 자금지원) 등을 연결해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3.4.4 전문대학 창업교육 방향

컨설팅을 통하여 전문위원들은 전문대학의 창업교육 현황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특히 지원 인프라, 창업 사업화 부문에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2년제 교육 모듈에 맞는 2단계 창업교육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대학에서 정규교과, 비교과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강좌 개설과 거점 전문대를 활용한 공동 프로그램 진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대학은 대학마다 특수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4년제 대학과는 구별되는 학교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창업 전문 인력 등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 사업화의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문대학 평가지표와 4년제 대학 평가지표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측정하였기 때문에 전문대학만의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4. 결론

4.1 국내 대학창업 교육 시사점

본 연구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창업교육 거점센터가 운영한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등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 방향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의 창업교육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내 및 해외 대학의 창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부주도 창업교육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는 민간 주도로 개별 환경에 적합한 창업교육과 사업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에 근거한 대학창업 운영 매뉴얼 3.0을 기반으로 최근 이슈 및 관련 내용을 고도화시킨 TOOL을 사용하여 문헌연구, 실무자 사전진단 설문지, 방문 컨설팅의 3단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4년제 대학은 현재 양적인 성과에서 질적 내실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학년별 창업교육 모듈과 실습형 교과목이 증가하고 기업가정신과 사업화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기존의 양적인 성장이 있었던 인프라 등을 이용 외부 혁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대학교의 특화된 창업 밸리 조성과 실전 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화 노력이 필요하였다. 전문대학은 지원 인프라, 사업화 부문에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2년제 교육 모듈에 맞는 창업교육 로드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은 대학마다 특수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4년제 대학과 구별되는 학교·학과의 특성에 맞는 창업교육 전문 인력 및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대학 평가지표와 4년제 대학 평가지표가 구별되지 않고 같은 평가 자료로 측정되어 새로운 전문대만의 평가지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2 제언 및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10개 대학을 분석하였다. 각각의 대학은 창업교육의 철학 및 동기가 다르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다른 창업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각의 대학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설계가 필요한 의미이며 일괄적인 정부의 대학평가에 의존한 교육설계가 아닌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각각의 대학은 정부평가지표에 의해 창업교육이 설계되었고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교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4년제 대학은 양적인 성장에게도 불구하고 사업화의 방향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전문대학은 창업 전문 인력 및 인프라 구축 같은 양적인 성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평가지표도 창업의 교육과정과 의미가 다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분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창업교육 거점센터의 대학 창업교육 컨설팅에 참여한 10개 대학만을 적용한 사례분석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정부주도의 대한민국 창업교육 현황과 민간 주도의 해외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을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정규교과, 비교과, 창업 사업화, 지원 인프라 등 4가지의 같은 모듈로 진행하여 각 대학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별 창업교육의 특징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사례 및 표본수의 확대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양적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올바른 설계 방향과 각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대학 창업교육의 설계가 요구되는 바이다.

REFERENCES

[1] J. H. Kim, & J. M. Nam. (2018). Case Study on the Lean Start-up in a Small Business Industry For Small Business Start-up Consult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183-196.

[2] KISED. (2020). *Announcement of 2020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integ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4&list_no=1600&act=view.

[3] KISED. (2019). *2018 Uni. start-up statistics survey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9000000&bid=0008&act=view&list_no=1186&tag=&nPage=1.

[4] B. Niels & K. Donna. (2019). *GEM 2018 / 2019 Global Report.* GEM(Online). https://www.gemconsortium.org.

[5] J. M. Nam & H. S. Lee.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Comparison of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111-122.

[6] U. Song & H. J. Gwon. (2017). Enhanc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y Surveying Entrepreneurship Perception of Korean Uni. Students. *The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Summer 2017, 69-89.

[7] J. J. Chrisman, T. Hynes & S. Fraser. (1995). Faculty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 of the Uni. of Calgar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4),* 267-281. DOI : 10.1016/0883-9026(95)00015-Z

[8] B. J. Cho. (1998). Opportunity Sources Analysis of Korean Startups and Implications for Opportunity Search Strategy.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20(1),* 245-266.

[9] W. J. Lee, Y. T. Kim & B. Y. Hwang. (2013). A Study on the Featur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verseas Universities : Case of Fiv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99-110.

[10] D. H. Kim & J. M. Nam. (2019). Multi-level Analysi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d Employee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nalysis of HCCP Panel Dat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6),* 143-153.

[11] S. Testa & S. Frascheri. (2015). Learning by failing: What we can learn from un-successful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3(1),* 11-22. DOI : 10.1016/j.ijme.2014.11.001

[12] P. F. Drucker. (1985). Entrepreneurial strategie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27(2),* 9-25.

[13] W. D. Bygrave & A. Zacharakis. (2004). *The portable MBA in entrepreneurship*. John Wiley & Sons.

[14] S. Testa & S. Frascheri. (2015). Learning by failing: What we can learn from un-successful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3(1),* 11-22.

[15] U. Song & H. J. Gwon. (2017). Enhanc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y Surveying Entrepreneurship Perception of Korean Uni. Students. *The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Summer 2017, 69-89.

[16] J. H. Lim., K. H. Ryu. & B. C. Kim. (2017).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and Teacher Competenc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4(2),* 5-32.

[17] H. S. Kim. (2015). 2015 Creative Tourism Company_Let's Play Stress, Hong Camp. *Korea Tourism Policy, (62),* 100-105.

[18] MOE (2018). *Uni. Start-up Operations Manual 3.0*. Republic of Korea : MOE.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8700

[19] MOE (2018). *The Second Fice-year Plan for Start-up Education at Uni.*. Republic of Korea : MOE.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m=0201&s=moe&page=64&boardID=339&boardSeq=50284&lev=0&opType=N

[20] G. D. An & T. K. Lee. (2018). A Study of Facilitating Korean Youth Startup byAnalyzing the U.S. and Korean Uni. Startup Ecosystem.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3(2),* 401-422.
DOI : 10.23839/kabe.2018.33.2.401

[21] Y. T. Kwon. (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artup Performance in Korea Universities*. Mater degree Dissertation. Pusan Uni.. Busan.

[22] V. Pena, M. Transue & A. Giggieri. (2011). A Surve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itiatives (IDA Document NS D-4091). Alexandria. *VA: ID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23] J. I. Choi, & C. G. Park. (2013). The Key Success Factors of Uni.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lication from USA Uni. Cases.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8(3),* 85-96.

[24] J. M. Nam. (2019). *Overseas Entrepreneurship Advanced Uni. Visit Report*. Dankook Uni..

[25] https://www.marshall.usc.edu/departments/lloyd-greif-center-entrepreneurial-studies

[26] https://www.iece.csusb.edu/

[27] https://lavincenter.sdsu.edu/

[28] https://jimmorancollege.fsu.edu/

[29] https://business.okstate.edu/entrepreneurship/

[30] Y. J. Kim. (2017). A Case Study for Implementing Problem Based Learning(PBL)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3),* 285-309.
DOI : 10.24878/tkes.2017.12.3.285

[31] W. J. Lee, Y. T. Kim & B. Y. Hwang. (2013). A Study on the Featur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Overseas Universities : Case of Fiv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99-110.

[32] H. J. Ko. (2019). *Uni. Entrepreneurship Manual 3.0*. MOE. Retrieved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7&lev=0&statusYN=W&s=moe&m=0303&opType=N&boardSeq=78700

김 재 현(Jae-Hyun Kim) [정회원]

· 2018년 ~ 현재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6년 ~ 현재 : 청년기업가정신협회 대표
· 관심분야 : 창업교육, 기술 창업, 소상공인창업, 창업정책, 창업컨설팅, 벤처캐피탈
· E-Mail : fuco0706@naver.com

이 성 호(Sung-Ho Lee) [정회원]

· 2020년 ~ 현재 : 단국대학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 2019년 ~ 현재 : 단국대학교 창업교육 거점센터 연구원
· 관심분야 : 스타트업, 벤처케피탈,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 E-Mail : lsh69041@gmail.com

남 정 민(Jung-Min Nam) [정회원]

· 2012년 ~ 현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재산대학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주임교수
· 2012년 ~ 현재 : 단국대학교 창업교육 거점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창업교육, 기술 창 업, 창업정책, 창업컨설팅
· E-Mail : 12121544@dankook.ac.kr